



# 대안가정

통권 15호 (2006년 가을/계간) <http://www.daeanhome.org>

- 2. 교육 / 우리는 대안가정 가족이에요-큰캠프
- 4. 대안가정일기(8가정 발췌)
- 8. 만남 /임상심리센터 리젠트
- 10. 스케치 / 대안가정가족나들이
- 12. 그림일기
- 13. 상담원수첩
- 14. 상담현황 및 소식
- 15. 회비(후원) 내역 및 재정
- 16. 대안가정운동 동력주기



한/가/정/에/서/한/아/이/를/보/살/편/다/면...

발행인 이수형 / 발행처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발행일 2006. 11. 25  
705-8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96-20번지(2층) / 전화 (053)628-2592 / 전송 (053)628-2595



## 우리는 대안가정 가족이에요! - 큰캠프

2006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2박 3일) 포항 성도비치유스호스텔에서 신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대안가정 가족이에요!」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캠프는 5월의 작은캠프에 이은 큰캠프로, 아이들이 대안가정과 친가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함께 한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자원활동 동아리 '늘나람' 과 계명대 학생들에게 감사드리고, 명랑운동회와 캠프파이어를 재미있게 진행해주신 [더 피플]의 4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캠프를 통해 더 친밀해지고 자유로워진 대안가정의 아동들의 모습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 장호점 선생님의 사회로 입소식 시작. 먼저 각 도별로 인사를 합니다.



◀ 우리조를 소개합니다. 멋진 소개판을 만들었습니다. 어느조가 제일 멋진가요?



▲ 대안가정에 관한 동화책 [불확실한 나날들]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 '다양한 감정표현하기' 시간. 기쁨, 슬픔, 행복, 화남, 고마움...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을 확인하고 표현해보았지요.



▲ 명랑운동회와 캠프파이어~  
부슬부슬 내리는 비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강당에서 진행했어요.  
그래도 친구들과 실컷 땀 흘리고, 웃고, 뛰어놀았습니다.



▲ 캠프장 바로 앞은 탁 트인 해변^^ 비록 물놀이는 못했지만  
바닷가 산책도 하고~도넛도 기념사진도 찍고  
 추억을 잔뜩 담았습니다.



▲ 정민경 선생님과 함께 하는 성교육 시  
간입니다.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사는  
성'을 시청하는 아이들~ 모두 넋이 빠  
졌네요.



대안가정아동의 가정위탁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큰 캠프

우리는 대안가정 가족이에요!



▲ 나는 어떻게 대안가정 가족이 된  
걸까? 친부 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인형과 다양한 교구를 이용해 흥미  
롭게 진행했어요. 대안가정 부모님  
과 친부모님에게 드릴 편지도 만들  
었습니다. 알록달록 예쁘죠?



**2006. 9. 21 / 달리기**

오늘은 솔이가 운동회를 했다. 연습할 때는 잘하면 2등 대체로 3등을 했는데 어제 연습 할때는 1등을 했다. 집에 돌아와 큰아빠, 오빠에게 1등 했다고 자랑을 잔뜩... 큰아빠에게 운동회 할 때 1등 하기로 하고 용돈까지 받았는데 3등을 했다. 내가 “솔아 큰아빠한테 1등하기로 하지 않았니?” 하고 말하니 솔이 왈, “다음에 1등하면 되지요.” 한다.

집에 돌아와 큰아빠에게 3등이나 1등이나 똑같다고 말한다. 큰아빠가 어떻게 1등하고 3등하고 같으냐고 물으니 친구가 3등도 좋다고 말했으니 1등하고 같은 것이라나요. 솔이의 기상천외한 생각에 우리는 ㅋㅋㅋ



**2006. 9. 20 / 또 다른 선물**

하늘에서 하늘이를 보내 주셨습니다. 왜 보내 주셨는지는 아직 모르답니다. 아무튼 왔습니다. 지난번에 두 살짜리도 어리다고 No를 했는데, 더 어린 녀석이 왔습니다.(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제일 좋은 것입니다.) 벌써 하늘이는 우리에게 첫 선물을 주었습니다. 멋진 응아! 이들을 못 봤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모든 집안 물건들이 제자리가 아닌 듯 합니다. 닥치는 대로 집고 던지고 뭉기고 할 것을 생각하니 집안 정리부터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젠, 새댁들한테 오히려 물어합니다. 요즘은 뭘 먹이는지, 뭘 입히는지, 뭘 해야 하는지...(누구 알면 알려주세요.) 우리 부부는 지금



**2006. 10. 11 / 솔이 소식 10가지**

① 큰엄마랑 같이 나가면 늦둥이라고 한다. 특히 눈이 많이 닳았다고 한다. ②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였다. 거실 컴퓨터 책상 밑이 솔이 놀이방이다. 인형, 작은 책상, 기타 등등을 쌓아서 그 속에 들어가 깔깔거리며 논다. ③ 컴퓨터에 심취하여 노래 따라하기, 동화듣기, 글쓰기, 자료 찾기도 잘 한다. ④ 자기 간식 먹을 때는 큰아빠 것도 꼭 챙겨서 갖다 준다. 같이 먹을 때는 어른 먼저 집어서 주고 자기 먹는다. ⑤ 머리가 제법 길어지고, 핀뽕고... 이리도 만들고 저리도 만들고 한다. ⑥ 식사 후 자기 먹은 그릇 갖다놓기, 먼저 먹은 사람이 물때 주기, 다른 사람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기도 곧잘 한다. ⑦ 징그럽게 혀 짧은 소리도 잘 낸다. ⑧ 열시 되면 자동으로 이부자리 깔고 자기 자리 준비한다. 인형 재우고 큰엄마 자리 봐주고... 큰엄마랑 솔이랑 인형 3, 4개랑 같이 잔다. ⑨ 아침에는 혼자서 유치원 갈 준비도 잘한다. ⑩ 할머니가 추석 때 문자 큰엄마보단 큰아빠가 좋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말 절대 안했다고 한다.

과거로 여행을 떠난답니다. 이런 걸 Back to the Future!

**2006. 11. 1 / 우리 하늘이 못말려**

하늘이 애교는 만점 이상이다. 누구에게든지 한번 웃어주면 상황 끝이다. 그러면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남녀노소 성별에 상관없다. 빵, 사탕, 과자,... 이런 거 엄마는 안 좋아한다. 누가 좀 말려주소. 어디다 내놔도 굶어 죽지는 않겠죠? 너무 심했나 ㅎㅎ 남자녀석이 너무 기집애(?) 같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제 점점 본성(???)이 나타난다. 남편 왈, 이거 정신하나도 없어나... 아빠 방에 저지레할 것 너무 많다. 기회를 노리고 있는 하늘이! 정작 저지레한 것은 엄마 핸드폰 액정을 물어뜯었다는 거, 못말려 정말! 정말 좋아하는 것은 청소기 돌릴 때다 쭈쭈 따라다니고 제가 하겠다고 난리다. 빨리 커라. 그래야 내가 편하지. 엄마 청소 좀 해다오.



## 혜원이네

### 2006. 9. 14 / 어린이집에 가기전에

혜원이 머리에 한번 변화를 주었습니다. 아침에 어린이집 차를 기다리다가 찍어 보았습니다. 어떨까요? 파마를 하는데도 전혀 싫증을 내지 않고 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는데는 약간 거부를 하고 포즈를 잘 취해주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예쁜 모습을 올려봅니다. 오늘 오후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빈혈에 대한 검사결과를 듣기 위해서였는데 현재는 아



### 2006. 9. 24 / 생일 맞이

어제가 혜원의 생일이었습니다. 낮에는 바빠서 축하를 못해주었고 밤늦게 가족들이 모여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어느덧 만 3세가 된 혜원이! 더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기를 바라고 촛불을 켜었습니다. 밤중에 찍어서 잘 나오진 않았지만 큰소리로 지축하는 혜원의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혜원은 지금도 철분약을 계속 복용해야 한다고 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빨리 더 좋아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 셋별이네

### 2006. 9. 5 / 별들의 전쟁

아이들은 셋별이가 '금성'이라며 신기해한다.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금성이 밖에서, 놀이터에서 성당에서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이 큰엄마에게는 부담스럽다. 제일 큰 부담은 놀기에 정신이 팔려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사실...^^ 전쟁을 선포했다. 그날도 어린이집 가방 던져놓고 나가는 셋별이에게 일찍 오라며 늦으면 혼난다 했더니 대답만 우렁차게 "예"하고 뛰어나간다. 역시나 해가 진 뒤 들어오는 녀석에게 약속을 근거삼아 밖에 세워놓았다. 20분도 안돼서 퇴근하는 큰 아빠 때문에 별이와의 전쟁은 끝나고 개선장군마냥 큰아빠와 점상으로 저녁을 한 그릇 똑딱 해치운다. 애가 타는 큰엄마가 내일은 병원 가서 말 잘듣는 주사 맞고 오자니 약간 긴장하는 눈치다. 이제야 깨달았다. 셋별이에게는 '별' 보다는 '주사'가 더 무서운 약이다. 다음번에는 주사를 써먹어야지.

### 2006. 9. 22 / 분홍공주

그 또래의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셋별이는 분홍색을 선호한다. 기방도 신발도 옷도 모두 분홍색을 원하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주춤하다가 이번에 가을 옷을 마련하면서 나도 모르게 모두 분홍색으로 한 보따리 사왔다. 티셔츠, 잠바, 신발... 그야말로 분홍공주가 되어버렸다. 그것들을 보는 순간 특유의 노래와 엉덩이 춤이 나왔다. 어제 당장 신발은 신고 나가려는 것을 말려서 오늘 어린이집으로 첫개시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셋별이의 아침식사.. 깨작깨작 거리며 먹다가 입에 맞는 반찬을 다 먹고 나니 맨발만 먹어댄다. 얼마 전부터 그런걸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큰엄마 눈에 띄어버렸다. 큰엄마가 주는 별은? 예쁜 분홍색 구두 신고 어린이집 못 가기. 실망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기는 안스럽지만 어찌하랴! 밥은 폭폭 떠먹고 반찬은 골고루 먹는 것이 15년 전부터 지켜온 큰엄마의 철칙인 것을... 내일을 기약하며 기다려야겠다. 셋별이가 습관을 택할지 원하던 분홍구두를 택할런지...



성민이네

2006. 10. 3 / 성민이가 추석을 맞아 집에 갔어요^^

성민이가 추석을 맞아 집으로 갔어요. 큰엄마가 누나들에게 복숭아를 남겨냈다고 복숭아 먹고 싶다고 안가고 싶고, 매일마다 달리기하는거 못해서 안가고 싶고, 그런데 엄마는 보고 싶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엄마를 본다는 마음에 즐겁게 집에 갔어요.

2006. 10. 10 / 성민이의 추석보내기

성민이가 추석에 집에 가있는동안 큰엄마 큰아빠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이유인즉 첫째로 큰엄마 집에는 장난감이 많고,



둘째로 책이 많고, 셋째로 맛있는게 많고, 넷째로 운동이 하고 싶은 이유였습니다. 귀여운 성민...ㅋㅋ  
p.s.성민이가 1년사이에 8cm나 컸다고 하네요.

2006. 11. 14 / 벌써부터 새학기 준비?

성민이가 내년엔 학교를 들어갑니다. 벌써 성민이는 새가방, 신발주머니, 연필과 필통을 선물 받았습니니다. 성민이가 무척이나 좋아한다고 하네요. 정말 부러운데요?? 선물을 주신분은 저의 외숙모님. 외숙모님께서 서울에 계신데 성민이가 학교에 입학한다고 가방 세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니다. 벌써 학교 갈 나이가 되었네요 예전에 신던 160사이즈 신발이 작아서 175를 신는다고 합니다. 어느새 이렇게 자랐는지... 앞으로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라~!^^



다혜네

2006. 9. 19 /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놀이방에서 낮잠을 자는지 밤 늦도록 잠을 못자는 다혜! 잠자야 하는 언니들 옆에서 종알종알 떠드는 바람에 언니들이 괴롭기에 아빠 서제로 데리고 오니 거기서도 종알종알 아무도 말상대를 안해도 아랑곳 안하고 혼자서도 잘 떠든다. 불 끄고 눈 감고 한참을 있다 보면 어느새 조용해지고 비로소 온 집이 잠자리에 들 수 있다. 엄마가 화장실이라도 가는게 싶으면 이때다 싶어서 뿔뿔 일어나 앉으며 "엄마 화장실 가?" 헐~ 아직도 안자고 있었나? 늦은 취침때문에 아침엔 언니 오빠들이 모두 학교 가고 난 후에나 겨우 일어나서 늦은 아침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다. 혼자 먹는게 마음에 걸려 옆에서 몇 숟가락 떠 먹여주다가 잠시 다른일 좀 보고 있으니 밥 먹다가 가만 앉아서 "왜 밥 안먹여줘? 엄마가 먹여줘야지..?" 참내~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고 만다^^

2006. 10. 2 / 여보, 다혜가 없어!!

혼자서 끽끔거리며 사람이 산을 이룬 광장을 몇 바퀴 돌다가 남편의 뒷자락을 붙잡으며 말했다. "다혜가 안보여..." 놀란 남편도 찾아본다며 인파속으로 사라졌다. 아이들만 인파속에 남겨놓고 나도 어디든지 찾아봐야겠기에 들어갔다. 한동국제탈춤페스티벌 아침부터 서둘러 놀러 나온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다혜 이름표가 없어.. 누군가 데리고 갔나?? 찾지 못하면?? 아니야. 찾을 수 있어...' 스치는 불길한 생각들을 밀쳐내며 사람들 틈을 헤집고 다녔지만 남편의 불안한 얼굴과 다시 만났을 뿐이다. "아이가 없어졌어요..." 안내데스크에 가서 말했다. "언제, 어디서 잃어버리셨죠?" 주체할 수 없는 불안과 설움에 굵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다. 사방으로 안내방송을 하고 여기저기를 헤메고 있었다. 어느 순간! 여학생들이 담당자에게 와서 제보를 주었고 한걸음에 달려갔다. 다혜는 진행본부 사무실 의자에 앉아 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범벅인 엄마와 그 눈물을 닦아주는 딸이 환한 웃음으로 그곳을 나왔다!! 난 벤치에서 잠시 눈을 붙여야 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나가서... 남편의 다리를 베게하고 아이들의 지저귀는 노래소리를 뒤로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 해뜨는 집

### 2006. 8. 31. / 혜윤이 드디어 자리잡다

처음 혜윤이를 맞아들일 때만 해도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 앞 뒤 겨를 없이 그냥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를 다른 가정으로 다시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방학 동안이라도 함께 지내보려고 생각했었다. 내일 개학인데... 오늘 동사무소에 가서 취학통지서랑 의료보호증을 받아 왔다. 어제는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홈페이지를 제작해준 동생이 우리 가족사진에 혜윤이 사진을 합성하여 메인에 다시 배치했다. 이젠 제법 목소리도 높이고, 얼굴에 개구진 표정도 나타나고, 언니들이랑 승강기도 하면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간 듯 하다. 내일은 혜윤이 전학시켜야 한다. 예고... 아침부터 일찍 움직이자면 바쁘겠다.

### 2006. 10. 17 / 유현이 대안학교로 결정

지난 월요일 학교에서 돌아온 유현이는 상당히 상기되어 있었다.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달구벌고등학교에 가기로 했었다. 별 무리없이 유현이 의사대로 진행이 되어서 다행이었다. 유현이도 며칠 동안 고민이 되어 잠도 제대로 못자다가 문제가 해결되자 흥가분한 듯 했다. 오늘 학교에서 돌아온 유현이는 어제보다 더 업되어 있었다. “어제 선생님이 교육청에 물어보셨는데 좋은 대안학교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꼭 그 학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한다. 이번주는 시험기간인데 내내 그 문제로 시달려야 했다면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유현이 인생의 첫 번째 결정. 스스로 책임지는 첫 번째 결정이다. 아무쪼록 합격해서 행복하고 유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유현이 원서에 부칠 사진 찍으러 갔는데... 얼마나 멋을 부리고 갔을지... ㅋㅋㅋ



## 나눔공동체

### 2006. 9. 8 / 선생님의 편지

안녕하세요? 오복이 대호 답입니다. 요즈음 오복이와 대호가 학교에서 무척 잘하고 있습니다. 대호와 오복이는 요즈음 글자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글자를 덮어쓰지 않고 그냥 글자를 쓴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얀 칸 위에 연필로 아무런 밑글 없이 '기'와 '니'를 씁니다. 조금 헛갈려 하지만, 기억과 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발전입니다. 많이 칭찬해주시고 집에서 꾸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6. 9. 29 / 오늘은 운동회날

한 주 연기되었던 남양학교 운동회가 쾌청한 날씨속에 오늘 열렸다. 황금방 물방울님(장군김밥운영)의 김밥과 음료수 스폰서, 정마숙님 피자 한 판... 식구가 많은지라 한 차 가득 먹을 것 신고 학교에 도착. 이미 동육이는 달리기 1등도장이 선명하게 찍혀있고.. 소라는 자기 선생님 멋있다고 연신 자랑을 늘어 놓는다. 여전히 오복이는 학교에서는 아빠를 아는체도 하지 않고 (왜그러는지 이유는 모름) 오민이와 대호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좌충우돌 돌아다니기 바쁘다. 점심은 성대하게... 오늘은 마음껏 먹어보자.

## 마음을 만지는 사람들

- 대동병원 부설 임상심리센터 리젠트 -

대안가정 아이들이 마음이 아플 때면 찾아가는 곳... 바로 임상심리센터 리젠트입니다. 지난 2년간 일곱명의 아이들이 9회에 걸쳐 심리검사와 상담을 받았지요. 매번 도움만 받고 인사 한 번 변변히 못 드리고 돌아오곤 했는데, 오랫동안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고자 작은 노란 국화바구니를 들고 리젠트를 찾았습니다. 대안가정 상담 전문(?) 김양희 선생님과과의 짧은 인터뷰~ 함께하시죠^^

**대동병원 부설 기관인데, 병원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소개하신다면?**

리젠트는 부설이지만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상심리센터예요. '질환'이라 할 만큼의 심각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심리정신과적인 진단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리젠트는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마음의 부담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특히 아동·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개인상담은 물론, 적성·성격 검사,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사회기술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보편화 되었지만, 여전히 심리상담이라고 하면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데 상담가의 입장에서 아동심리검사, 상담의 효과, 필요성(중요성)에 대해 전하신다면?**

일종의 비타민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도 우리 아이가 어떤 마음일까 좀 더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아이들은 심리적 고통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대개는 이런 행동을 '아이'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가족 내 '관계'의 문제가 원인이지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점을 함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항상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일한지는 1년정도 됐는데, 아무래도 나 자신의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어야 하는 직업이라 힘들 때도 많아요. 심리검사 한 번에 3시간이상 장시간 집중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상담케이스가 좋은 경과를 보일 때나,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안심하는 분들을 보면 보람도 느끼고 힘이 난답니다.

**혹시 예전에도 대안가정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잘 몰랐어요. 아동학대예방기관은 마스크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전에 이런 시스템아이를 집에서 돌보는..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이런 기관이 있는 줄은 몰랐죠.



▲ 왼쪽부터 장효점 상담원, 김미란 임상심리사, 김양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 기관중에는 심리상담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 부담 때문에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리젠트 외에 이용 가능한 상담기관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저희는 리젠트 덕분에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연계 기관, 단체도 있나요?

네, 피학대아동이나 시설입소 아동들에 대한 심리검사와 상담을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고, 에이즈예방센터등과 연계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실비로 제공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설 상담기관을 활용하기엔 여러모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신보건센터 등 비영리로 운영하는 상담기관들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위탁아동)과 상담하면서 특별히 느끼신 점이 있다면?

보호자들의 남다른 애착이 인상 깊었어요. 특히, 아이와 지낸 시간이 적게는 몇 개월에서 1년 남짓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찰을 통해 아이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친부모님들도 그렇게는 못하

시거든요. 면담 중에도 아이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고스란히 느껴진답니다. 또, 아이들 중에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웠어요. 친부모로부터 분리되고, 양육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혹시 가정에서 아이들과 대화하거나 생활 중에 이것만은 지켜달라는 점이 있다면?

당연한 말 같지만, 일상생활이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등이 건강하게 규칙적으로 이뤄지면 심리적 불안은 훨씬 줄어들죠. 그리고 아이들과 가끔 편지나 글로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족간에 서로 주고받으며 기록하는 교환일기장 같은 걸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지요.

 마지막으로 대안가정운동본부에 한마디 하신다면?

검사든, 상담이든, 리젠트가 도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찾아주시구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 장효점 상담원

## 아동그룹홈 『해맑은 아이들의 집』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

친가정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해맑은 아이들의 집』은 5명 내외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꾸려가는 또 하나의 대안 가정입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는 친가정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그런 가정을 만들어 두고자 합니다.

현재 LOVE CONCERT 노익금(15,323,705원)과 개인후원금(12,437,055원)이 모여져 총 27,760,760원의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에는 여러분들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먼저 마음을 투시고, 마음이 향하는 만큼 후원해주시요.

### ❖ 후원방법

- ① 정기후원 : 월 5천원 이상 자동이체
- ② 십시일반 일시후원
- ③ 주력미련 기금 빌려주기 : 50만원 이상

### ❖ 후원계좌

대구은행 : 140-10-000273  
예금주 :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대안가정가족나들이

2006년 10월 23일, 대구 경북지역에서 9가정, 27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방타워랜드로 대안 가정 가족나들이를 가는 날이거든요. 아이들은 몇 달 전부터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고요. 하지만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 꿈무늬 따라다니다 지쳐서 결국 커피숍에 자리를 잡고 하염없이 애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이들이랑 같이 놀이기구도 타고 함께 다니신 다혜네 아빠! 멋지세요^^;



▲ 금강산도 식후경!!  
든든한 점심식사로 신나게  
놀 준비를 마쳤습니다.



◀ 드디어 우방랜드  
입성!  
화사한 꽃길을  
배경으로 가족사  
진 촬영시간이  
있었습니다.  
웃어요~ 김치^^



▲ 작년까지만 해도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거의 없었던 가을이와 혜원이.  
올해는 혜원이 언니랑 셋이서도 신나게!  
이젠 아기 아니라구요~



▲ 학교에 가정학습 신청하고  
총출동한 다혜네 4남매 ^^



▲ 개구쟁이 병산이와 진이~  
정민이 언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T T



▲ 엄마들은 벤치를 지키고..



▲ 대현이네 아빠  
살짝 긴장하신 모습ㅎㅎ



▲ 다혜네 아빠



▲ 남남 맛있는 간식도 먹고^^



▲ 꽃밭을 배경으로 멋진 독사진도 찰칵^^



▲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하면서...



### 소식하나

경북대학교 60주년 기념 대구경북NGO 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경북대학교 일청담 일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대구 경북지역의 34개 단체가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NGO 활동을 홍보하고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상담원들도 캠퍼스의 모든 학생들이 예비 대안가정(?)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대안가정운동을 홍보했습니다.^^



### 소식둘

2006년 10월 19일 대안가정운동본부 하반기 정기이사회를 가졌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두꺼운 회의자료집을 보면 숨이 턱 막힙니다. 하지만 좋은 분들과 오랜만에 만나니, 즐거운 마음으로 경쾌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1월부터 9월까지 펼쳐온 사업보고 및 재정보고를 하고 몇 가지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 소식셋

'대안가정부모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의 최종 정리모임을 가졌습니다.  
1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각각 경북 영주와 대구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해 동안 소중한 생명들을 맡아 보살펴주신 대안가정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조그만 선물에 담아 전해주었습니다.





## 밥보다 사랑



장효점 상담원

“예쁜들만 알았더니 님부름도 잘하는 구나!”

뭔 뜬금없는 소리??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그러니까 제가 아홉 살 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칭찬이랍니다. 선생님 님부름은 똑똑하고 예쁜 친구들만 하는 것들 알았는데, 내성적인 성격에 눈에 띄어 일이 전혀 없던 내가... 친구들이 모두 떠난 빈 교실에서 등을 붙여두시는 선생님의 눈길을 느끼며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마치 내가 정말로 가장 예쁘고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담임이셨던 김미향 선생님은 그날 이후로도 제게 정말 많은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해에 받은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은 두고두고 제게 큰 힘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당시 선생님의 연세를 톺아가면서, 아이들에게는 사소한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지 다짐하곤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통대한 사건인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며칠 전, 담결에 콜록거리며 기침을 두어번 뱉었더니 일 마치고 밤늦게 귀가한 어머니가 방문을 벌려 열고 하신다는 말씀... ‘감기 걸렸나? 약은 먹었나?’ ... 다 자란 자식인데도 기침소리가 그렇게 격정적이 되니습니다. 스물여섯 먹은 나도 끊임없이 아껴두는 부모가 계셔 이렇게 위안이 되는데 아이들에게 부모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날 밤, 다시 담을 헹가려 주으니 웬지 아득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걱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애정을 담아 안아두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당연히 사랑받을 권리인데, 그 토착 잃어버린 아이들이 생각나서요. 앓고 있을 때, 이마를 덮어주고 진심으로 기도해 줄 누군가를 곁에 두지 못한 많은 아이들이요.

상담원들이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흐흐... 바로 대안가정운동본부 홈페이지 관람! 그 중에서도 ‘대안가정 일기마을’에 올라온 새 글을 찾아 읽는 것이지요. 각 집에서 일어난 각종 에피소드를 보며 혼자 웃기도 하고, 애들 예쁜 사진 보면서 힘 흡리기도(?) 하고, 가족여행 사진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곳에 대안가정의 일상이,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아침마다 일기를 읽으면서, 대안가정 부모님들이 매일 새로 고맙고 존경스럽습니다. 그 분들이 대안가정 아이들에게 부여하는 사랑은 정말 특별하다는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혼 에다 나이도 어린(!) 제가 드리긴 농구한 말씀이지만, 친자식에 대한 그것과는 또 다른 뭔가... 제 짧은 입으로는 표현하기 벅찬, 아무튼 그런 게 있거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대안가정에서만 누리라고 따로 딱하니 떼어 놓은 사랑이 있나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잠시도 사랑받을 기회를 잃지 않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진심’으로 아껴두는 가족이 있다는 것.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하루 세끼 밥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저도 이제, 어릴 적 받은 사랑 그대로 세상 아이들에게 돌려줄 차례가 된 것 같은데... 이거 뭐, 시집 갈 날은 기약도 없고 원... 흐흐;;

\* 상담원 수첩은 형식자유! 내용자유! 상담원들의 일상 속, 내맘대로 이야기를 담습니다.

## ■ 상담현황 ( 2006년 3/4분기 )

### □ 상담내용별 현황

상담 내용 월	아동 위탁상담		대안가정상담		지원 상담			기타	계	아동 친부모 만남	신규 신청 가정	신규 이동
	이동위탁 위탁상담	친부모 상담	대안가정 신청상담	양육 상담	행정	주치의	타기관 연계					
7월	9	35	7	32	9	-	8	1	101	2	2	4
8월	18	17	16	38	5	-	15	2	111	1	2	2
9월	24	11	23	16	22	4	11	2	113	-	2	8
분기계	51	63	46	86	36	4	34	5	325	3	6	14

### □ 상담유형별 현황

상담유형 월	전화상담	헬상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기타상담	계
7월	83	5	8	5	-	101
8월	94	-	8	7	2	111
9월	91	3	6	13	-	113
분기계	268	8	22	25	2	325

## ■ 본부소식

### • 우리는 대안가정 가족이에요! 마무리

대안가정아동의 가정위탁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우리는 대안가정가족이에요'의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5월의 '작은캠프'와 8월의 '큰캠프', 10월에는 우방타워랜드로 '대안가정 가족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 • 대구경북 NGO박람회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개최된 '경북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대구경북 NGO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대구 경북지역의 34개 단체가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NGO 활동을 홍보하며 교류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 정기이사회

10월 19일 대안가정운동본부 하반기 정기이사회를 가졌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보고 및 재정보고, 그리고 몇 가지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 ■ 아이들 소식

### • 하늘(8세, 여) - 대안가정을 찾았습니다

이혼 후, 엄마는 재결합을 준비하던 중 하늘이를 임신했고 혼자 낳아 키워왔습니다. 엄마는 하늘이와 함께 할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까지 위탁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늘이네 대안가정은 지난 여름까지 예진이를 양육했던 가정인데, 요즘 하늘이 이쁜 짓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 • 동진(9세, 남) - 아빠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동진이가 아빠와 2박 3일간 함께 지냈습니다. 고모댁에

도 다녀오고, 선물도 한아름 받아들고 양손 무겁게 돌아왔습니다.

### • 성민(7세, 남) - 엄마와 추석을 보내고 왔습니다

성민이가 작년 추석에 이어서 올 추석도 엄마와 함께 보냈습니다. 일이 바빠서 여유를 갖지 못했던 엄마는 앞으로 성민이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로 약속 하셨습니다.

### • 혜윤(8세, 여) - 아버지와 오빠를 만났습니다

혜윤이가 11개월 만에 아버지와 오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못 본 사이 오빠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혜윤이도 훌쩍 자랐습니다. 혜윤아! 앞으로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이모들이 더 많이 노력할게!

### • 다혜(5세, 여) - 엄마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다혜가 지난 8월 첫만남에 이어 11월에 한 번 더 엄마를 만났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어린 다혜는 이제 '대구엄마'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 ■ 외부행사

### • 『이동복지와 가정위탁』공청회 참석

10월 31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동복지와 가정위탁』공청회에 김명희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가정위탁지원 법률(안)을 중심으로 하는 공청회가 열려 열린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E·MART 영수증으로**  
이마트

**대안가정 후원하기**

이마트영수증으로 대안가정운동본부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금액의 0.5%가 후원금으로 적립됩니다.  
고객만족센터나 무인적립기에서 아래 번호로 적립해주세요!!

월배점 168번      만촌점 97번  
성서점 146번      칠성점 94번  
반야월점 52번      경산점 39번

※ 이마트 규정변경으로 분기별 적립만 가능  
(10월~12월까지 영수증은 12월까지만 적립가능)

**이마트에서 즐겁게 쇼핑하신 후에는  
'영수증 후원' 잊지마세요!**



# 대안가정운동에 동력주기

대안가정운동본부는 현재 상근인력이 3명입니다.

2005년 2월에 새로운 상근인력을 충원하여 3명이 함께 일하면서

비로소 대안가정과 위탁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총 재정규모는 9천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순수하게 자력으로 운영하는 작은 시민단체로서는 대단한 성과(힘)입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없이 회원의 회비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운영하다보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큼니다.

회원의 큰 힘으로 매월 정기적인 회비가 350만원 정도 되며,

사업비를 외부지원사업을 통해 충당하면서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가고 있지만

매월 4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안가정운동의 동력을 지원해주세요.

큰 격려와 힘이 되어 무한대의  $\alpha$ 를 생산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예금주 (사)대안가정운동본부

대구은행 : 068-05-005600-9

농 협 : 718-01-176941

국민은행 : 602-01-0688-119

조흥은행 : 801-01-276520

☆ 대구은행의 경우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사무실에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며, 타은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로로 납부하시려면

1.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 발송하는 지로용지로 은행에서 납부
2. 인터넷 지로 납부  
<http://www.giro.or.kr> (지로번호 : 6307008)

## 대안가정운동본부 약도



버스노선 : 일반 202, 609, 618, 650, 836  
좌석 706